

<1번> 이제 여러분은 문화재 해설사의 설명을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해설사 : 지금 보시는 것은 전통 문양입니다. 우리의 고유 문양들은 골무, 주머니, 보자기, 옷감, 도자기, 떡살, 기와 등 옛 조상들의 생활 주변 구석구석에서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양은 동물이나 식물을 모방한 것뿐 아니라, 기하학적인 것도 많아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합니다. 이러한 전통 문양은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조상들의 소망과 행복관, 윤리관, 자연관, 우주관 등이 융해되어 있습니다.

학생 : 선생님, 저 문양은 뭐죠? 꽃 같은데요?

해설사 : 예, 맞습니다. 바로 ‘연꽃’입니다. 연꽃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점에서 다산(多産)을 의미합니다. 또 연꽃의 뿌리는 굽고 옆으로 뻗어가며 마디가 많은데, 그 마디에서 잎자루와 꽃줄기가 자라나 잎과 꽃이 생깁니다. 이런 점에서 연꽃은 화합과 화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금방 알아보겠지요? 아름다운 외형과 온순한 성격을 지닌 사슴입니다. 사슴을 한자에서는 ‘녹(鹿)’으로 표기하는 것을 아시죠? 그런데 이것과 관리의 봉급을 뜻하는 한자 ‘녹(祿)’이 같은 음이어서 사슴은 종종 관직을 상징합니다. 또한 사슴은 불행과 질병을 막아주는 주술적인 힘을 가진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학생 : 저 문양은 나비 같네요.

해설사 : 그래요. ‘나비’ 문양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나비는 꽃 속을 날아다니며 달콤한 꿀을 빨아먹으면서 즐겁게 사는 곤충입니다. 그러기에 나비는 기쁨이나 부부간의 금슬을 상징합니다. ‘나비’ 문양 옆에 있는 것은 ‘호랑이’ 문양입니다. 호랑이는 용맹하고 위엄이 있어 병을 막아주는 동물로 여겼습니다. 또 꿈에 호랑이를 보면 관운이 트일 징조라고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네 가지의 문양을 설명했는데요, 여러분이 잘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막 결혼하는 분들에게 아들 딸 많이 낳고 화목하게 살라는 의미를 담은 선물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문양이 있는 것이 좋을까요?

1.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문화재 해설사는 ‘연꽃’은 ‘다산(多産)’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나비’는 ‘기쁨이나 부부간의 금슬’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막 결혼하는 분들에게 아들 딸 많이 낳고 화목하게 살라는 의미를 담은 선물을 하려고 할 때에는 ‘ㄱ’의 ‘연꽃’과 ‘ㄴ’의 ‘나비’ 문양이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답풀이] ④ ‘ㄷ’은 ‘사슴’ 문양인데, 사슴은 관직을 상징하고 불행과 질병을 막아주는 주술적인 힘을 가진 동물로 여겨져 왔다고 하였다. ‘ㄹ’은 ‘호랑이’ 문양인데, 호랑이는 병을 막아주는 동물로 여겨졌고, 꿈에 호랑이를 보면 관운이 트일 징조라고 하였다.

<2번> 이번에는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옛날 어느 고을의 원님이 고을에 사는 남자들을 모두 잔치에 초대하며 말했습니다.

“음식은 내가 실컷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마련하겠다. 다만 너희들이 마실 술만은 각자가 한 병씩 들고 와야 한다.”

고을에 살던 김 서방은 고민을 했습니다. 잔치에 가서 배불리 먹고 싶었지만, 술 살 돈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한참 후에 그는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술 대신에 물을 담아 가면 되겠다. 잔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게 아닌가? 엄청나게 큰 술독에 물 한 병쯤 들어간다고 해서 누가 알 수 있겠어?’

잔칫날이 되자 이른 아침부터 잔치가 열리는 마당이 북적댔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에 코를 벌름거리며, 사람들은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술이 담긴 호리병이 하나씩 들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면서 그들은 저마다 가져온 술을 마당 가운데에 놓여 있는 커다란 독에다 부었습니다. 김 서방도 호리병에 담아 간 물을 독에 붓고 사람들 틈에 섞여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원님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사람들의 술잔에 술을 채우게 하였습니다. 원님의 인사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원님을 칭송하며 일제히 술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다음 순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마신 것은 술이 아니라 물이었던 것입니다.

2. [출제의도] 이야기를 듣고서 이야기에 담긴 주제와 교훈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들려 준 이야기는 원님이 주선한 고을 잔치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나 하나쯤 술이 아니라 물을 가져가는 것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발생한 문제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교훈은 ‘나 하나쯤이야’라는 마음을 먹고 행동하는 이기적인 태도가 세상을 각박하게 만들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이다.

<3번> 이번에는 ‘불면증’에 관한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잠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날 아침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잠이 오지 않을 때에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사람의 뇌에는 베타파, 세타파 등이 감지됩니다. 이 중 베타파는 불안해하거나 긴장하거나 복잡한 두뇌 활동을 할 때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세타파는 정서가 안정되어 있거나 잠이 드는 과정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불면증 환자의 뇌파를 조사해 보면 세타파보다 베타파가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불면증 환자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를 세거나 새로운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은 잠을 자기 위한 방법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뇌파의 특징을 이용해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뉴로피드백’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면증 환자에게 특정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미지를 반복해서 떠올리면 베타파는 줄어드는 대신 수면을 유도하는 세타파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미지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모양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뉴로피드백’에서 불면증 환자에게 잠을 잘 수 있게 하기 위해 권하는 방법은 특정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똑같은 이미지를 반복해서 떠올리면 베타파는 줄어드는 대신 수면을 유도하는 세타파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꼭지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을 떠올리는 것’은 특정 이미지를 반복하

여 떠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불면증 환자가 잠을 자기 위해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다.

[오답풀이] ‘이어질 단어를 계속 생각하는 것(②)’, ‘추억의 장면들을 떠올린다는 것’(③), ‘다양한 상품들을 차례로 떠올리는 것(④)’, ‘목장에 들어오는 양의 수를 세는 것(⑤)’은 특정 이미지를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미지를 계속해서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게 만드는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4~5번> 이번에는 토론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여) : 먼저 방송국 예능 프로그램 김 PD님의 말씀을 듣고, 이어서 문화연대 최 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방송국 PD(남) : 현재 우리나라 가요계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요 프로그램에서 가요의 주간 인기 순위를 발표하는 순위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위를 발표하면 가요에 대한 대중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올려 가요계의 위기를 극복하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연대 대표(여) : 물론 현재 우리나라 가요계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가요 프로그램에 순위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요계의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는 않습니다. 순위제를 도입하면 대중음악은 방송사에 이끌려 다니게 되고, 특정 연예 기획사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회자(여) : 두 분이 서로 반대되는 입장인데요. 의견을 보충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PD님 말씀하시죠.

방송국 PD(남) : 물론 가요 프로그램에서 순위제를 실시하면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순위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요 프로그램 시청률 하락과 함께 인터넷과 MP3의 대중화가 겹치면서 가요계의 불황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중과 방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요 프로그램에 순위제를 도입하면 시청률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가요계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화연대 대표(여) : 가요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중과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순위제를 도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4. [출제의도] 토론자가 벌이는 토론의 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방송국 PD는 현재 우리나라 가요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요 프로그램에 순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문화연대 대표는 순위제를 도입하면 대중음악은 방송사에 이끌려 다니게 되고 특정 연예 기획사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두 토론자의 쟁점은 ‘가요 프로그램에 순위제를 도입해야 하는가’이다.

5. [출제의도] 토론자의 말하기 방식에 나타나는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문화연대 대표의 첫 번째 말을 보면 방송국 PD가 말한 내용 중에서 우리나라의 가요계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펼치고 있고, 두 번째 말에서는 방송국 PD가 말한 내용 중에서 공중과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서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방송국 PD의 두 번째 말을 보면 문화연대 대표의 견해 중에서 가요 프로그램에서 순위제를 실시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즉,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의 견해 중에서 일부는 인정하면서 말을 시작하지만, 순위제 도입 여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은 굽히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